

‘아시아 돌풍’ 광주FC, 알 힐랄 잡고 ACLE 4강 쓴다



내일 오전 1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서 8강전 이정호 감독 “조직력 앞세워 우리 축구 할 것”



프로축구 광주FC가 ACLE 4강 진출이라는 대업에 도전한다.

광주FC는 오는 26일 오전 1시 30분(한국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2025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전에서 알 힐랄과의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이미 구단을 넘어 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을 쌓았다. 창단 후 첫 아시아 무대에 나서 K리그 시도민구단 역사상 최초 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 대회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제부터 내딛는 모든 걸음이 새 역사다.

광주FC 지난여정은 그야말로 승승장구였다. 리그 스테이지 경기부터 아시아 내 강호를 연달아 쓰러뜨리며 순항했다. 16강에선 일본 J리그 챔피언 비셀 고베를 1·2차전 합계 3-2로 제압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이정호 감독을 필두로 한 선수단은 만족하지 않는다. 기존 8강으로 정해 놓았던 목표도 수정했다. 알 힐랄을 꺾는 것을 시작으로 반드시 우승컵을 들겠다는 각오다.

현재 팀 분위기도 매우 좋다. 코리아컵까지 병행하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4월에 치른 5경기에서 4승을 끌어 담으며 완벽히 케도에 오른 모습이다.

최근 연이어 득점포를 터뜨리며 에이스의 면모를 뽐냈던 헤이스를 비롯해 데뷔골을 신고한 박인혁과 강희수, 부상에서 돌아온 가브리엘 등 골고루 좋은 활약을 보이며 완성형 팀에 올라섰다.

상대 알 힐랄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 우승 19회(최다우승), ACL(ACLE의 전신) 우승 4회(최다우승)를 차지한 전통의 명가다. 스쿼드 면면도 화려하다. 전방에 알렉산더 미트로비치, 중원에 후방 네베스,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후방에 칼리두 콜리발리, 야신 부누 등 유럽 무대를 호령했던 선수들이 즐비해 있다.

그러나 광주는 그간 객관적인 전력, 상대적인 평가 등을 뒤엎고 여러 차례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그 중심엔 원팀으로써 보여주는 광주 특유의 조직력이 있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광주의 색깔과 전술 철학이 구현되고 있다.

이정호 감독은 “알 힐랄을 분석했다. 우리가 조직력 면에선 앞선다고 본다”며 “축구는 팀으로 하는 단체 스포츠다. 우리 선수단의 가능성을 믿는다. 꼭 우승하고 싶고 그걸 알아한다. 늘 그렇듯 우리가 하던 축구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일 새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광주가 알 힐랄을 꺾고 4강 진출의 대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가린이들 ‘형우핑’과 즐거운 추억 만들어요”

KIA 타이거즈가 오는 5월 2일~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홈경기를 ‘미리 가린이 날 시리즈’로 치른다.

특히 이번 미리 가린이 날 시리즈는 SAMG 엔터의 인기 IP인 ‘캐치! 티니핑’과의 협업을 통해 어린이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우선 챔피언스 필드 곳곳에 포토존이 조성된다. 5번 출입구 앞 EV SPACE에는 ‘캐치! 티니핑’의 메인 캐릭터인 하츄핑 에어벌룬이 설치된다. 중앙출입구 앞에는 티니핑 클럽 에어벌룬, 캐릭터 등신대, 포토카드 등이 설치돼 인증샷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토카드와 포토부스도 티니핑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운영한다.

특별한 시구 이벤트도 열린다. 2일 경기에는 하츄핑 캐릭터가 사구자로 나서 이날 경기의 승리를 기원한다. 2일~4일 경기 전 애국가에는 키즈 클럽 회원이 제창한다.

경기 중 전광판에 표출되는 선수단 프로필 이미지는 선수단 어린이 시절의 사진으로 꾸며져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선수단은 미리 가린이 날 시리즈가 치러지는 홈 3연전과 5월 5일 고척에서

KIA, 내달 2~4일 한화전
‘미리 가린이 날 시리즈’
.....
‘캐치! 티니핑’과 협업
선수단 특별 유니폼 착용



열리는 키움과의 원정 경기에 티니핑 클럽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미리 가린이 날 시리즈 동안 챔피언스 필드를 방문하는 어린이 팬을 대상으로 해태 제과사의 홈런볼 과자도 증정한다. 홈런볼은 매 경기 1500개를 나눠주며,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어린이 팬을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도 펼쳐진다. 3일 경기에 앞서 어린이가 사생대회가 열린다. 사생대회는 티니핑 도안을 색칠하고 그 옆에 선수 모습을 그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제출된 작품은 5월 주중 경기 중 선수단 소개 전광판 이미지로 활용된다.

키즈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챔피언스 필드 투어도 개최한다. 투어는 5월 3일·17일·29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투어에 참가하는 어린이 팬들에게 챔피언스 필드 곳곳을 소개하고 선수단 훈련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응원단을 체험해볼 기회도 마련된다. 5월 4일과 15일 경기에 응원단상 치어리딩 이벤트를 진행해 어린이 팬들이 응원단과 함께 멋진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5월에 열리는 홈경기에는 티니핑이 들어간 특별 지류 티켓 4종이 무작위로 발급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ACLE 4강 도전’ 단체관람 응원

광주e스포츠경기장서 실황 중계

창단 이래 최초로 아시아 최고 무대(ACLE)에 도전장을 내민 프로축구 광주FC가 사우디 원정 8강전 승리를 위해 단체 응원에 나선다.

광주는 26일 오전 1시 30분(한국 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앞두고 광주e스포츠경기장(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단체관람 응원을 펼친다.

이번 응원전은 현지에서 직접 응원하러 가지 못한 광주 시민과 팬들이 모여 구단의 ACLE 8강 도전을 응원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영화관 단체응원을 추진기로 하고 수요

조사에 나섰다. 함께 응원하고 싶다는 시민과 팬들의 규모가 500여명이 넘어서자 1000명 수용이 가능한 광주e스포츠경기장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광주FC 관계자는 “ACLE 8강 진출은 구단과 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늦은 밤임에도 축구에 대한 열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FC는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2024-2025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대회 8강까지 진출하며 하나의 역사를 썼다. 구단은 이번 ACLE 대회를 계기로 지역 사회와 더욱 긴밀히 호흡하며, 광주의 축구 문화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4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박주봉 감독과 선수들이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드르만컵) 출전을 위해 출국을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도군 역도팀, 도체육대회서 전원 ‘금메달’

강민우·김동민·임정희·조지영 각 체급별 우승

전남장애인체육회, 동행변호사 위촉 조새미 변호사 “신고자 보호 최우선”

전남장애인체육회는 24일 도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및 반부패 신고 시스템 강화를 위한 ‘동행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서정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조새미 변호사(법무법인 영신)가 참석했다.

동행변호사는 △직장 내 부패행위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신고 시 법률 자문과 신고 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도장애인체육회는 동행변호사 제도를 통해 장애인체육 분야 특화된 법률 이슈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국내 장애인 체육계의 청렴 모범 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새미 변호사는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성실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장애인 체육 분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은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에서 소속 선수 전원이 각 체급별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완도군청팀은 최근 장성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강민우가 남자 89kg급, 김동민이 남자 61kg급, 임정희가 여자 +87kg급, 조지영이 여자 55kg급에 각각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강민우와 임정희는 지난달 열린 전국 춘계 남녀 역도대회에서도 합산 금메달 5개를 획득하는 등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전남 대표 역도 선수다.

서호철 완도군 역도실업팀 감독은 “선수들이 평소 훈련을 성실히 소화해 줘 좋은 성적을 낸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은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에서 소속 선수 전원이 각 체급별 1위를 차지했다.

배드민턴 대표팀, 중국 출국...안세영 부상 후 복귀전

세계혼합단체선수권 출전 서승재·김원호 등 총출동

박주봉 신임 감독이 이끄는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드르만컵) 출전을 위해 중국 사먼으로 떠났다.

박 감독과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이상 삼성생명) 등 국가대표 선수단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지난 4일 선임된 박주봉 감독 체제로 재편된 대표팀은 우승을 목표로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먼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열리는 수드르만컵에 나선다.

박주봉 감독의 데뷔 무대가 된 수드르만컵은 1989년 창설된 대회로, 2년 주기로 열린다. 최다 우승국은 중국(13회)이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4회)다.

2023년에 열린 직전 대회에서 한국은 중국에 밀려 준우승을 거뒀다.

16개 팀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캐나다, 대만, 체코와 함께 A조로 묶여 조별리그를 치른다.

수드르만컵은 지난달 전영오폰에서 허벅지 내 전근을 다쳐 재활에 매진해온 여자 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의 복귀 무대이기도 하다.

안세영은 출국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다 나아났다. 몸은 괜찮다”며 “이번 대회는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이다. 꼭 해내고 싶은 대회”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전의 묘미는 한 선수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내가 지더라도 다른 언니, 오빠들을 더 믿고 응원해줘야 한다. 언니, 오빠들도 나를 믿고 맡겨주시면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봉 감독은 지난달 여러 국제대회를 소화하며 체력이 떨어진 주요 선수들의 몸 상태를 관리하면서 수드르만컵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선수를 컨디션 확인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연습과 경기는 다르다”며 “경기 수를 놓고(선수)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